

무등산에 어울리는 화장실, 그렇게 힘든가요?

토끼등에 최근 6m 높이 설치...등산객들 '되레 근심 쌓이는 곳' 주변 환경과 부조화에 바람길 막아 답답...장불재 화장실도 우려 "국립공원 품격 맞게 설치"...공단 "위치·환경 최대한 고려한 것"

무등산국립공원을 오가는 등산객들 사이에서 최근 토끼등과 장불재에 조성되는 화장실만 생각하면 근심을 풀기는 커녕, 근심이 쌓이는 곳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립공원에 어울릴 모양을 갖추기는 커녕,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모 반듯한 화장실이 들어서면서 답답하고 바람길도 막았다는 불만소리가 터져나온다.



일본 나베시마 소토 공원에 있는 공공화장실.

8일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원호사에 이어 토끼등, 장불재 등에 화장실 조성 공사를 진행중으로, 토끼등은 지난 1일 개방했고 장불재 화장실은 오는 8월 등산객들에게 개방한다.

장불재 화장실의 경우 서석대·입석대 등 수직 절리상의 암석이 치솟아 있는 곳을 마주 보는 공간에 철골 구조물이 들어선다. 공단측은 3억6000만원을 투입해 높이 3.3m, 연면적 65.72㎡ 규모로 조성한다.

앞서, 공단은 무등산 토끼등 소리정 맞은편에 4억 2000만원을 들여 높이 6m, 연면적 80.34㎡ 규모의 화장실을 조성, 지난 1일 개방한 상태다.

오수관 연결이 어려운 특성을 감안해 친환경 방식인 무방류 순환 수세식 구조를 적용했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등산객 반응은 싸늘하다. 세금으로 만든 국립공원 화장실을 이렇게 밖에 만들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줄을 잇는다.

일본의 건축가 화장실 같은 세련된 디자인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자연이 그 자체로 명소인 무등산의 장점을 화장실 하나에도 담아낼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등산객들이 많다.

입구를 막아 시야를 가리는 구조와 지나치게 높

은 외형이 무등산의 풍경과 다소 이질적이라는 지적이다.

일주일에도 두 세번은 무등산을 찾아온다는 주운정(65·북구 문흥동) 씨는 "올라오자마자 바람이 안 통해서 조금 아쉬웠다. 낮고 건물을 보다 작게 지었으면 탁 트인 느낌이 있고 뒤에 있는 나무도 더 잘보였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등산객들 사이에서도 "건축물 하나를 지을 때도 국립공원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기존에 설치돼 있던 운동기구가 철거된 점도 아쉬움을 더했다.

이 때문에 현재 공사 중인 무등산 정상 인근 장불재 화장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장불재 화장실은 현재 폐대까지 마련된 상태다. 반면 저지대에 위치한 원호사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이 9억1200만원을 투입해 조성한 이곳은 고정 건축물로, 높이 6.25m, 연면적 109.20㎡ 규모다. 전통 한옥 양식의 서까래 노출 설계를 적용해 자연 풍경과 잘 어우러진다는 평가다.

무등산 내 세 곳의 화장실은 모두 같은 설계자 작품이다. 공단은 "위치와 배관 조건, 지대 등이 달라



최근 개방된 무등산국립공원 토끼등 화장실(왼쪽)과 8월 개방될 예정인 장불재 화장실 조감도.



(무등산국립공원공단·일본 재단 제공)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친환경 설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도쿄 화장실 프로젝트의 경우 세계적 건축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공화장실 17곳을 디자인·접근성·예술성을 모두 고려한 공간으로 바꾼 점에 주목, 공공성과 친환경성, 디자인을 갖추는 공간 조성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박홍근 전 광주시건축정책위원회위원은 "공공건물은 기능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공공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눈높이에 맞는 '문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공공화장실은 아직도 '벽, 천장, 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우리도 이제는 공공시설을 문화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무등산국립공원공단은 "고지대다 보니 수도나 전기, 오수관로 등 인입이 어려운 현장 여건이 있고 물을 정화해 사용하는 해당 구조 특성상 건물의 면적이 클 수밖에 없었다"며 "단열복층 유리 사용, 고성능 단열재 등을 통해 국립공원에 걸맞은 탄소중립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전남 계속 덥다

최고 36도 폭염에 열대야

광주·전남에 폭풍 짙은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까지 동해북부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 들어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되고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9일 아침최저기온은 22~25도, 낮최고기온은 32~36도에 달하고, 10일 아침최저기온은 22~24도, 낮최고기온은 32~35도가 예상된다. 11일, 12일도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다.

잠 못 드는 열대야 현상도 이어지겠다. 열대야 현상은 밤 사이(오후 6시 1분~다음날 오전 9시)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올해 광주 지역 열대야 현상은 지난달 19일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 7일까지 총 8차례 발생했다. 광주 지역 열대야는 기상 관측이 시작(1939년)된 이래 가장 빠른 열대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지난 5~7일 3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이어진 점, 당분간 강수 예보가 없다는 점 등에서 이후로도 열대야가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지난달 29일 폭염경보가 내려진 이후 10일째 유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 3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서·남해·제주연안 등 23개 해역에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된 지역은 함평만·도암만·특량만·여차만·기막만·강진만, 자은도·장산도·울돌목·죽림리·명성·평갑·거문도·두미도 등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전남 보건소 시니어 의사 지원자 1명뿐

진도군 22일 면접...영암·해남·신안 한 명도 없어 다음달 8일까지 채용 불발되면 지원금 반환해야

영암·해남·진도·신안군 보건소가 추진 중인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 <광주일보 7월 3일 6면>과 관련, 8일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시니어 의사는 1명(진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보건소는 다음달 8일까지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에 사업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건소 관계자들은 '시니어 의사 구하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 참여자를 공모한 결과, 1명이 지원

해 오는 22일 면접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 관계자는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 시니어 의사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1명이 지원한 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영암·신안·해남군에서는 이날까지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다.

영암군보건소는 8일까지 1차 접수를 마감했으나 지원자는 '0'명이었다. 영암군은 전일제야 아닌 주 3일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 의사를 구하고 있지만 문의조차 없어 재공고를 낼 계획이다.

신안군보건소는 오는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 해남군도 오는 21일까지 1차 접수 기간이지만 아직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안군보건소 관계자는 "도서지역이라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의사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원 분야가 제한적이라 어렵다"고 호소했다.

앞서 진도·영암·신안·해남군 보건소와 강진의료원, 구례군보건의료원은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니어 의사를 모집해 왔다. 선정된 60세 이상 경력 10년 이상 전문의는 월 1100만원(전일), 월 400만원(시간제)의 급여를 받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벼멸구, 벼를 덮다

광주·전남 농가 비상

폭염이 이어지면서 벼멸구, 흑명나방 등이 잇따르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전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진도, 해남, 완도, 신안등 서남해안 지역 900여ha에서 해충 피해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애벌구가 발생 870ha 논이 피해를 입었고 벼멸구 1ha, 흑명나방 19ha 등이다.

애벌구는 바이러스를 매개해 줄무늬 잎마름병, 검은줄오갈병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기 방제 필요성이 더욱 크다. 병해충 발생 시기도 빨라졌다.

벼멸구의 경우 지난해 해남지역에 6월 20일에 발생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보름정도 빠른 지난달 5일, 같은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다.

비래해충 성충은 중국 등에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 제주, 서·남해안, 경남 내륙 지역에 자리를 잡은 뒤 번식하며,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주로 야간에 작물의 잎과 줄기를 마구 갉아 먹으며 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래해충은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들어오는 나방류, 멸구류 등의 해충을 뜻한다.

농업기술원은 방제비 73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28개소를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